

공무국외여행 결과보고서

보고자:

충남연구원 경제산업연구실

김기홍 책임연구원

1. 국외여행 개요

○ 여행목적:

- 본 출장은 베트남경제연구소(Vietnam Institute of Economics)에서 진행 중인 안전한 농업 발전 프로젝트(Safe agricultural development policy, 2017.3~2019.2)의 일환으로 개최된 워크숍에 유기농업 전문가로서 요청받아 한국의 유기농업 발전 과정에 대해 발표하고 의견을 교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해당 연구 과제의 책임자는 물론 베트남 내 관련 연구자도 함께 참석하여 전문가적 견지를 나누고자 함.

- 본 출장은 아시아의 유기농업 발전에 관한 이슈의 공유라는 연구적인 측면과 현장 학습적 측면, 경비 절감적 측면, 베트남 연구자와 네트워크 확장의 측면에서 매우 유용할 것으로 판단됨.

○ 여행기간: 2019년 1월 24일~27일(2박 4일)

(당초: 1월 24일~26일, 변경 사유: 토요일 입국 항공권 확보가 용의치 않아 일요일로 변경되었으며 입국 시간은 27일 01:00임. 참고로 항공권은 베트남에서 구입해 주었음)

○ 여행자: 김기홍 책임연구원

○ 여행국: 베트남(하노이)

○ 방문기관: 베트남경제연구소(Vietnam Institute of Economics)

2. 주요 일정

월/일	시 간	내 용	
2019년 1월 24일 (목)	08:00~11:00 14:00~16:00	이동: 김해공항 → 하노이공항(비엣젯 VJ981) 베트남경제연구소 방문 사전 회의	출국 하노이 숙박
1월 25일 (금)	09:00~16:00	워크숍	하노이 숙박
1월 26일 (토)	09:00~18:00	몽푸 전통마을 방문	
1월 27일 (일)	01:00~05:30	하노이공항 → 김해공항(비엣젯 VJ982)	입국

3. 출장 주요 내용

1) 1일차 (1월 24일 목요일)

○ 아침 비행기로 하노이 공항에 도착하여 베트남경제연구소를 방문, 25일에 열리는 워크숍에 대한 사전 회의를 실시함.

○ 베트남경제연구소(Vietnam Institute of Economics)에서는 안전한 농업 발전 정책 프로젝트(Safe agricultural development policy, 2017.3~2019.2)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정책 자문으로 초청됨.

○ 베트남에서는 최근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유기농산물에 대한 인증제도를 포함하여 아직 안전한 먹거리 시스템에 대한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는 못한 형편임. 이에 한국의 유기농업 정책 마련 과정 등 선진 사례를 참고하기 위해 '한국의 유기농업 정책 발전 과정'이라는 발표 주제를 요청받음.

○ 사전 회의에서는 베트남경제연구소에 소속되어 있는 박사들과 상견례 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연구 책임자인 Mai Dao 박사에 의해 베트남의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인식 조사 및 베트남의 안전 식품 등 워크숍 주제에 관한 대략적인 내용들이 소개되었음. 특히 유기농업과 관련한 정책 등 시스템이 아직 마련되지 못하여 생산자는 물론 도매자, 소매자, 유통업자와 소비자에 이르기까지 혼란스러운 과정을 겪고 있는 상황임.

2) 2일차 (1월 25일 금요일)

○ 베트남경제연구소의 안전한 농업 발전 정책 프로젝트(Safe agricultural development policy, 2017.3~2019.2) 워크숍이 진행됨.

○ 베트남경제연구소 Bui Quang Tuan 소장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Vietnam Academy of Agricultural Sciences(VAAS)의 Dao The Anh 부소장과 베트남경제연구소 내부 연구진의 토론으로 이어짐.



<사진 1> 워크숍 전경

○ 우선 베트남경제연구소 측 연구 책임자인 Mai Dao 박사가 2017년부터 2년간에 걸친 안전한 농업 발전 정책 프로젝트(Safe agricultural development policy, 2017.3~2019.2)의 보고를 진행하였음. 베트남에서는 식품 안전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보건부와 농촌농업개발부, 산업통상부를 중심으로 생산, 제조, 식품산업 등을 포함하는 식품안전관리 시스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어 옴. 2010년에는 식품안전법이 마련되고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Hazard Analysis and Critical Control Point)과 농산물우수관리제도(GAP: Good Agricultural Practices) 등이 도입되었으며 공적개발지원(ODA) 차원에서도 안전한 농산물 생산을 위한 지원이 이루어져 옴. 특히 하노이 주변의 농가를 중심으로 참가형 유기인증시스템(PGS: Participatory Guarantee Systems)이 활발히 진행되면서 국가 인증제도를 대신하고 있는 상황임.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반 소비자는 물론 생산자와 도소매자, 유통업자 사이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안전성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지는 못하여 혼란을 겪고 있는 상황임. 이에 국가 차원의 안전한 식품 시스템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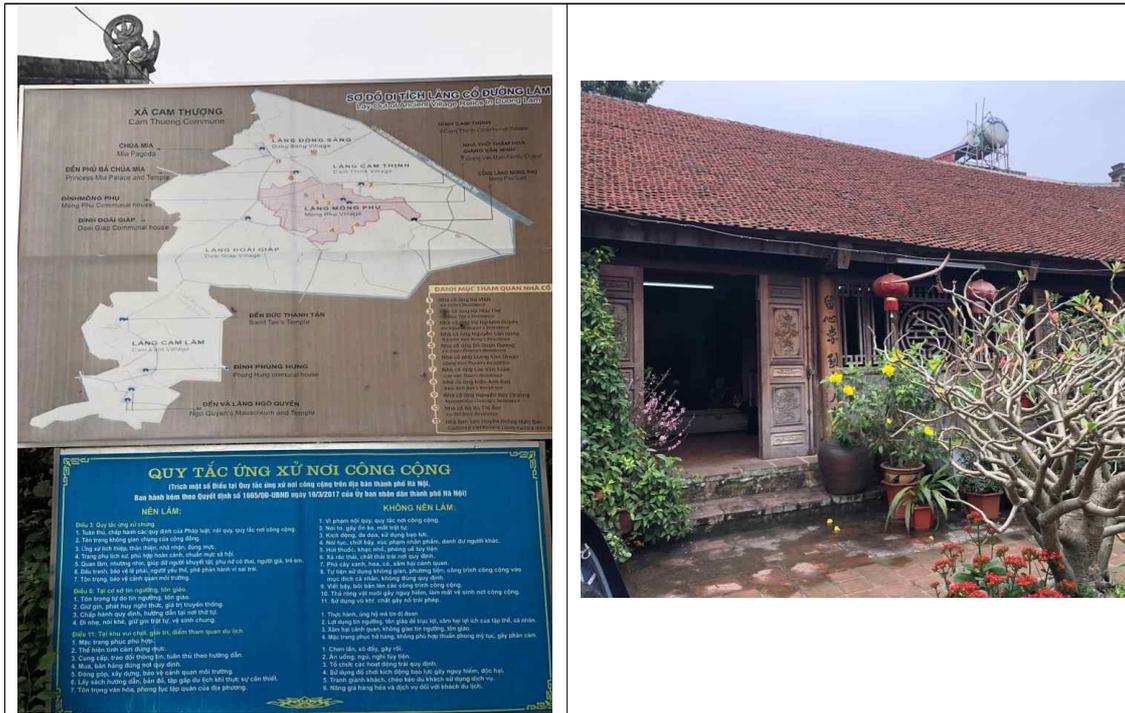
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남.

○ 다음으로 한국의 유기농업 발전 과정에 대한 발표를 진행함. 한국에서는 1970년대 중반 선진적인 농가의 실천으로 유기농업이 시작되었으며, 1990년대에 이르면서 국가의 적극적인 지원 정책으로 유기농업을 포함하는 ‘친환경농업’이라는 이름으로 확산되어 감. 한국의 친환경농업은 저농약에서 무농약, 유기농업이라는 단계적인 발전 과정을 보이고 있으며, 여기에는 관행 농가들이 친환경적 농법으로 쉽게 전환하게끔 하는 목적이 바탕이 되었음. 여기에 친환경농업으로 유도하기 위한 친환경농업 직불제 및 지구 단위의 친환경농업 지원 사업 등 다양한 정책적 지원은 친환경농업의 양적인 성장을 가져왔음. 하지만 이러한 국가 주도의 지원책은 유기농업에 대한 철학의 부재와 부실 인증, 안전 관련 먹거리 문제 등을 불러 일으켰고 2011년을 정점으로 친환경농업에 참여하는 실천 농가 수는 현격히 줄어들었으며 현재 국내 친환경농업은 정체 상태라고 할 수 있음. 이러한 다양한 문제를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는 친환경 청년농부의 육성이라는 청년층에 대한 지원과 친환경 학교급식의 확대, 사회적농업으로의 역할 확산, 농업환경실천 프로그램의 도입과 접목을 통해 한국의 친환경농업은 새로운 도전의 시간을 맞이하고 있음.

○ 이러한 두 발표가 진행되고 이후 워크숍 현장에서는 베트남 유기농업 정책을 위한 다양한 제언과 한국의 유기농업 발전에 관한 여러 질의가 쏟아졌음.

3) 3일차 (1월 26일 토요일)

○ 하노이에서 2시간 가량 떨어진 곳에 위치한 전통마을인 등림(Duong Lam)의 몽푸마을(Mong Phu Village)을 방문함. 몽푸마을은 300년 이상의 역사를 자랑하고 있으며 지역의 자원을 이용하여 전통적인 양식으로 만들어진 전통 가옥이 350여 채 보존되어 있음. 이 가운데 한 가옥은 오랜 전통성이 유지되면서 2013년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문화유산 보존상을 수상하기도 함. 또한 삼대째 전통가옥을 지키고 있는 곳도 있어 베트남의 전통 식사도 제공하면서 마을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음. 몽푸마을을 중심으로 주변 마을로 연결되는 지점에는 마을 사탑과 전통 시장 등이 있으며 농촌관광이 활성화 되어 국내 관광객은 물론 외국인 관광객의 방문도 끊이지 않고 있음.



<사진 2> 몽푸마을 지도(좌), 전통 건축 양식이 보존된 가옥(우)

* 첨부: 위크숍 발표자료